

# ESG 의무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대응방안

## - ESG 공시의 국내 동향 -

2024. 11.13

(주)대신경제연구소



# Contents

## I ESG 국내·외 공시 동향

## II 기업의 ESG 경영체계 구축

## III ESG 금융투자 및 평가기관 동향

# I . ESG 국내·외 공시 동향

---

# 1. 국내·외 ESG 공시 동향\_주요 국가 공시

-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관련 타임라인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반해 국내 공시 일정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

[국내 및 주요 국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 동향]

구분	기준제정기구	보고연도*	보고기업	보고시기	Scope3 포함 여부	인증
EU	EFRAG	'25년 (FY2024)	재무제표 보고 기업	재무제표 동시 보고	요구(750인 이하 첫째 면제)	제한적 인증(3년 이내 합리적인증 고려)
미국	SEC	'26년 (FY2025)			요구하지 않음	제한적인증(일부기업은 4년 후 합리적 인증)
일본	SSBJ	'27년 (FY2026) 또는 '28년 (FY2027)			요구(적용 첫째 면제)	요구('28년부터)
호주	AASB	'26년 (FY2025)			요구(적용 첫째 면제)	-
캐나다	CSSB	'26년 (FY2025)			요구(적용 두 번째 해까지 면제)	제한적 인증('30년까지 합리적 인증 고려)
중국	재정부	'26년 (FY2025)			선택	선택
싱가포르	SGX	'26년 (FY2025)			요구(적용 첫째 면제)	제한적 인증
한국	KSSB	미정			미정	미정

출처: 국회의원, 강훈식 의원실 정책자료집(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 및 진단, 2024.10)

\*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보고연도는 대다수가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연도를 의미함

- 모든 항목(스코프 3 제외)에 70% 이상 동의, 특히 글로벌 투자자는 공개초안보다 강화된 수준 (ISSB 기준과 일관된 기준)의 기준 제정을 촉구

## [동향]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  
 (Summary of comments on the Exposure Draft  
 of the KSSB standards)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2024. 9. 23.

\* 한국회계기준원

## [동향]

구분	내용	전체	기업	국내 투자자	
제 1 호	기후 우선 공시	기후 외 선택	78%	91%	69%
	보고기업	연결실체	70%	49%	90%
	지침의 원천	SASB 참고 가능	85%	95%	69%
	기간 범위	기준서에서 정의를 제시	92%	93%	97%
제 2 호	미공시 사실 및 근거 기재	중요하지 않아, 미공시할 경우 그 사실 및 근거 기재	88%	81%	93%
	산업기반지표	공시 선택	87%	93%	8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세분화 공시	84%	79%	83%
	내부탄소가격	가격 공시 선택	70%	74%	59%
	스코프3 배출량	의무화 여부, 시기 미정	-	-	75%
		(1) 의무화 여부			
		61%	50%	62%	
		(2) 유예기간 (3년내)			
제101호	정책 목적에 따른 추가 정보(선택)	72%	61%	83%	

## [동향]

항목	기업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공시의무 시기	'27년~'29년으로 고르게 분포	조속한 공시의무화 필요 (면책조항 필요)	늦은 공시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조속한 공시의무화 필요
공시 위치	면책조항을 전제로 한 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 등이 혼재	법정공시	법정공시
보고 시기	차기 6~8월	-	-
로드맵 수립시기	가능한 조속히	가능한 조속히	가능한 조속히

## ➤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정보의 적용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경과 규정 적용

### 선택 가능 항목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시

- ▶ SASB 기준, 물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CDSB 프레임워크, GRI, ESRS 기준 등을 통해 참고하여 공시하도록 허용

#### 산업기반 지표 공시

- ▶ 공통으로 공시 해야하는 7가지의 지표 범주 외 산업기반 지표의 경우 공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내부 탄소가격 중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톤당 가격에 대한 정보 공시

- ▶ 산업전반 지표 중 하나인 내부 탄소가격의 경우 기업이 내부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있는지와 적용 방법에 대한 정보 공시할 것을 요구
- ▶ 다만, 기업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에 대한 공시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경과 규정

-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첫 해, 비교정보\* 공시를 면제하는 경과규정 적용
- ▶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 모든 값에 대한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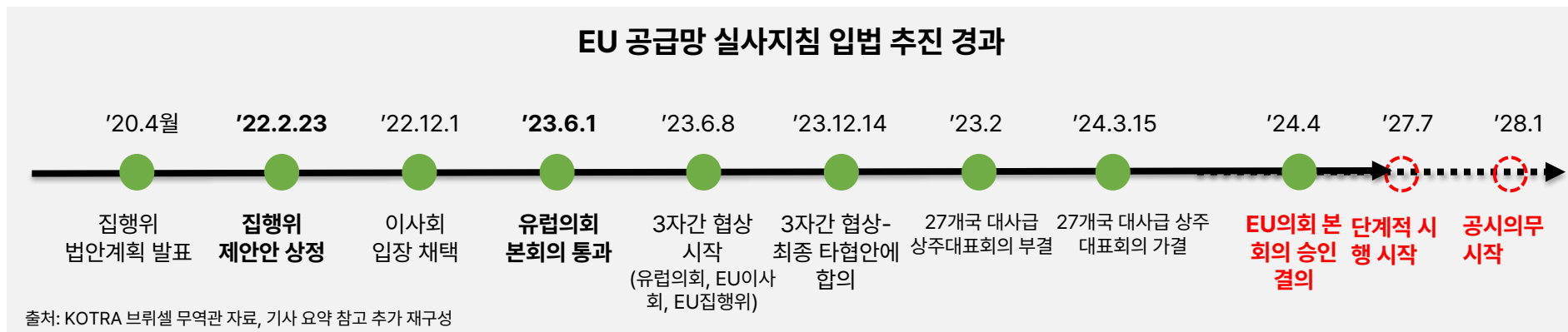
# 1. 국내·외 ESG 공시 동향\_ KSSB/ISSB와 차이점

제 1호 일반사항	KSSB 공개 초안	ISSB 기준
기후 우선 공시	기후는 의무 공시, <b>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b> _공시여부는 기업이 선택	적용 첫해에 한해 기후 우선 공시, 그 후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공시
지침의 원천: SASB 기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적용가능한 공시사항을 식별할 때 <b>SASB 기준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에 해당</b> (그외: 물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등)	SASB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
발행승인일, 승인자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발행 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	해당내용 없음
단기, 중기, 장기 정의	단기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로 정의 다만, 이는 참조사항이며 다른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음 (제 1호, 2호 모두 적용)	해당내용 없음

제 2호 기후관련 사항	KSSB 공개 초안	ISSB 기준
미공시 사실 기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b>공시를 생략한 경우, 그 사실 및 근거를 기술</b>	해당내용 없음
Scope 3 배출량	Scope 3 배출량을 공시, 단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등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결정 (추정치 사용 가능, 관련 지침이나 교육자료 개발 예정)	기준 적용 첫해에 면제 조항을 두어 Scope 3 배출량 공 시를 의무화 (추정치 사용 가능)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및 공시 세분화	GHG프로토콜을 적용하되,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하도록 허용단, <b>측정 방법별로 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해서 공시</b> (보고기업(연결실체) 배출량 측정을 위한 지침과 교육자료는 개발 예정)	GHG프로토콜을 적용하되,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하도록 허용
내부 탄소가격	내부 탄소가격 관련 정보 중 탄소가격의 적용여부와 적용 방법에 대한 공시 요구 <b>تون당 가격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b>	내부 탄소가격 적용 여부, 방법, 톤당 가격 공시 요구
산업기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 (제2호에서 이를 공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산업기반 지표 공시를 요구

## ➤ 2024. 7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



구분 (평균 근로자 수 및 순매출액 기준)		적용시기 (EU CSDDD 발효일로부터 기산)
역 내	5천명 초과 & 전세계 15억 유로 초과	3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8.1.1. 이후 발생)
	3천명 초과 & 전세계 9억 유로 초과	4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9.1.1. 이후 발생)
	1천명 초과 & EU 내 4.5억 유로 초과	5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9.1.1. 이후 발생)
역 외	EU 내 15억 유로 초과	3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8.1.1. 이후 발생)
	EU 내 9억 유로 초과	4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9.1.1. 이후 발생)
	EU 내 4.5억 유로 초과	5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9.1.1. 이후 발생)



### ➤ 대한상공회의소, AI(ChatGPT) 활용한 2024년 기회와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

- ✓ 주요 기회: 탄소중립 및 ESG, 글로벌 시장, 디지털 전환 적시 도입
- ✓ 주요 리스크: 공급망, 3고(高), 디지털 전환 지체

#### [AI가 분석한 우리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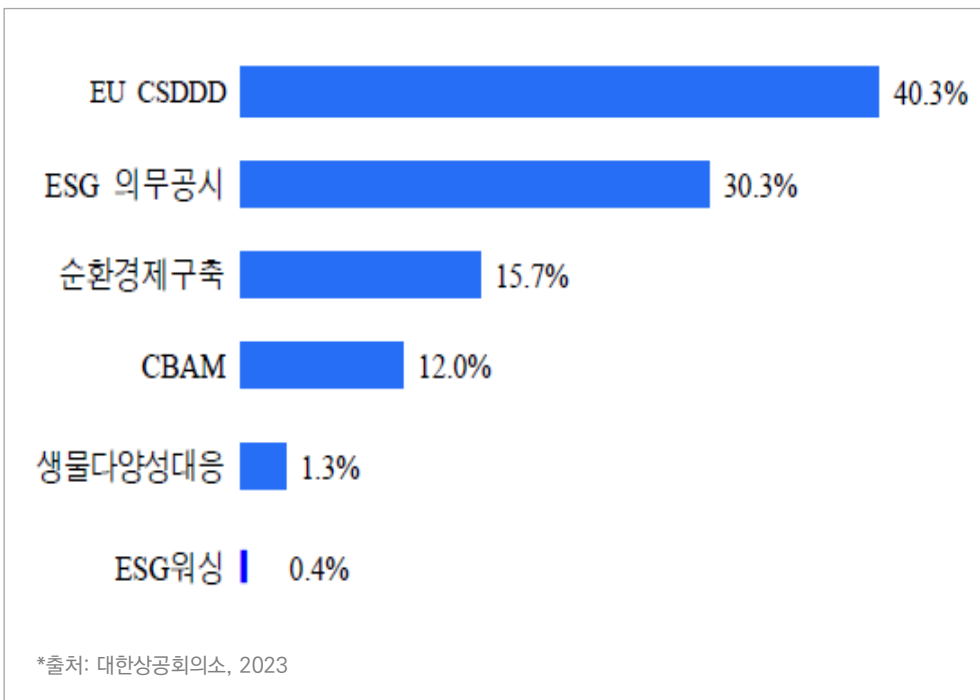
- 주요 Key-word: **ESG,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 조사기업과 분석대상
  - 조사기업: 2023년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47개사(자료 확보 기준)
  - 분석대상: 각 회사 CEO 2024 경영메시지(임직원 대상 스피치, 시무식 인사말, 신년사 등)

No.	기회요인	리스크 요인
1	탄소중립 및 ESG 기조 강화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 리스크
2	글로벌 시장 확장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3	디지털 전환, AI의 적시 도입	디지털 전환, AI 도입 지체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AI가 분석한 우리기업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2024.03.07)

-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EU CSDDD(40.3%), ESG 의무 공시(30.3%), 순환경제 구축(15.7%), CBAM(12.0%) 등의 순으로 응답
- 다만, 국내 주요 기업은 CSDDD에 대한 대응 수준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



[CSDDD에 대한 대기업 협력사 ESG대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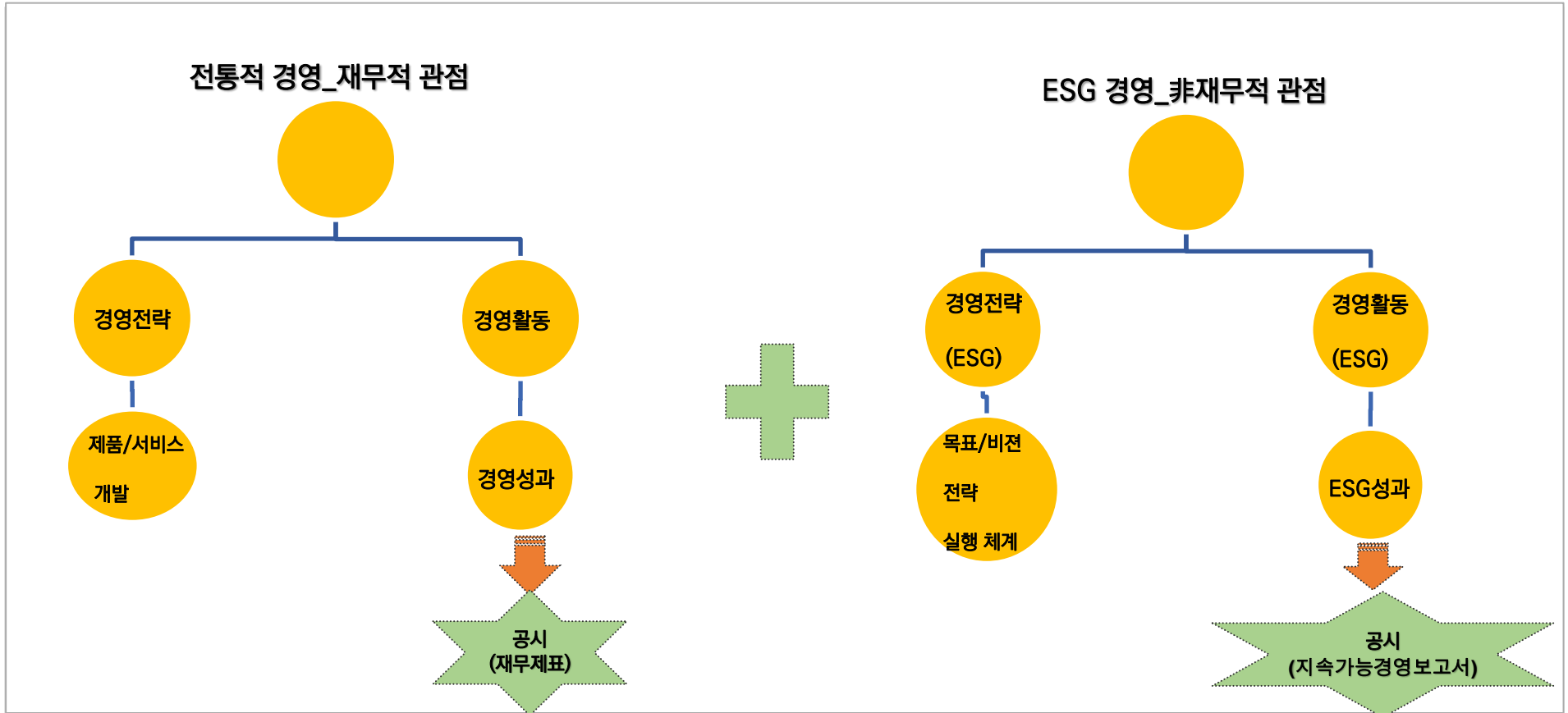
구분	인식수준(점)				대응수준(점)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CBAM	55	60	57	53	35	53	37	32
<b>EU CSDDD</b>	<b>44</b>	<b>55</b>	<b>47</b>	<b>41</b>	<b>35</b>	<b>47</b>	<b>41</b>	<b>30</b>
CU CSRD	46	55	49	43	38	52	44	33
Battery Regulation	30	42	29	30	24	29	23	23
ESPR	34	55	34	32	32	38	35	29
PPWR	41	65	36	41	38	40	38	37
6개 항목 평균	42	55	42	40	34	43	36	31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SG 제고관점에서 기업지속가능성 실사대응을 위한 정책과제(2024.08.28)>

### ➤ 전략수립과 정보공개 책임 요소

✓ ESG경영은 ESG 경영전략의 수립과 적절한 ESG 정보공개가 핵심요소임.

#### [재무 및 비재무 경영]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SR) 등 정보공개 일정(자산2조원 이상, 2026년) 공개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구분	유형	의무/자율	관련 규정 및 내용
정보공개	사업보고서	의무	-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의무 공시 -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규정(제33장_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따라 회계정책으로 채택 - 환경: 환경 관련 정부규제 준수 사항, 환경개선 설비에 대한 자본지출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 사회: 고용 현황 및 임원보수, 양성평등
	지배구조보고서	의무/자율	- 의무: 2019년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2022년 이후 자산 1조원 이상, 2024년 이후 0.5조원 이상, 2026년 0.5조원 미만 기업 대상 - 자율: 자율적으로 공시 가능
	지속가능보고서	자율/의무	- 자율: 2020년 중 거래소에 보고서 공시한 40개사를 포함한 총 109건 - 의무: 1단계; 자율공시 2단계(2026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의무 3단계(2030년~): 코스피 전 상장사 의무
	거래소 공시	의무	-환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녹색기업 지정은 수시공시(거래소 공시) -사회: 가족친화경영정보, 노사관계
	개별법	의무	-환경: 환경보호,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 성과에 관한 사항 등 공개(환경정보시스템 공시) -사회: 고용형태(고용안정정보망 공시), 어린이집설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시)
책임투자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 제정	-	2016년 12월 제정
	국민연금,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	2018년 7월 도입
	국민연금, ESG 요소 고려	-	2019년 11월 <기금운용원칙> 개정

➤ 국내 환경 및 사회, 지배구조 중 지배구조 분야의 제도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으며, 사회 및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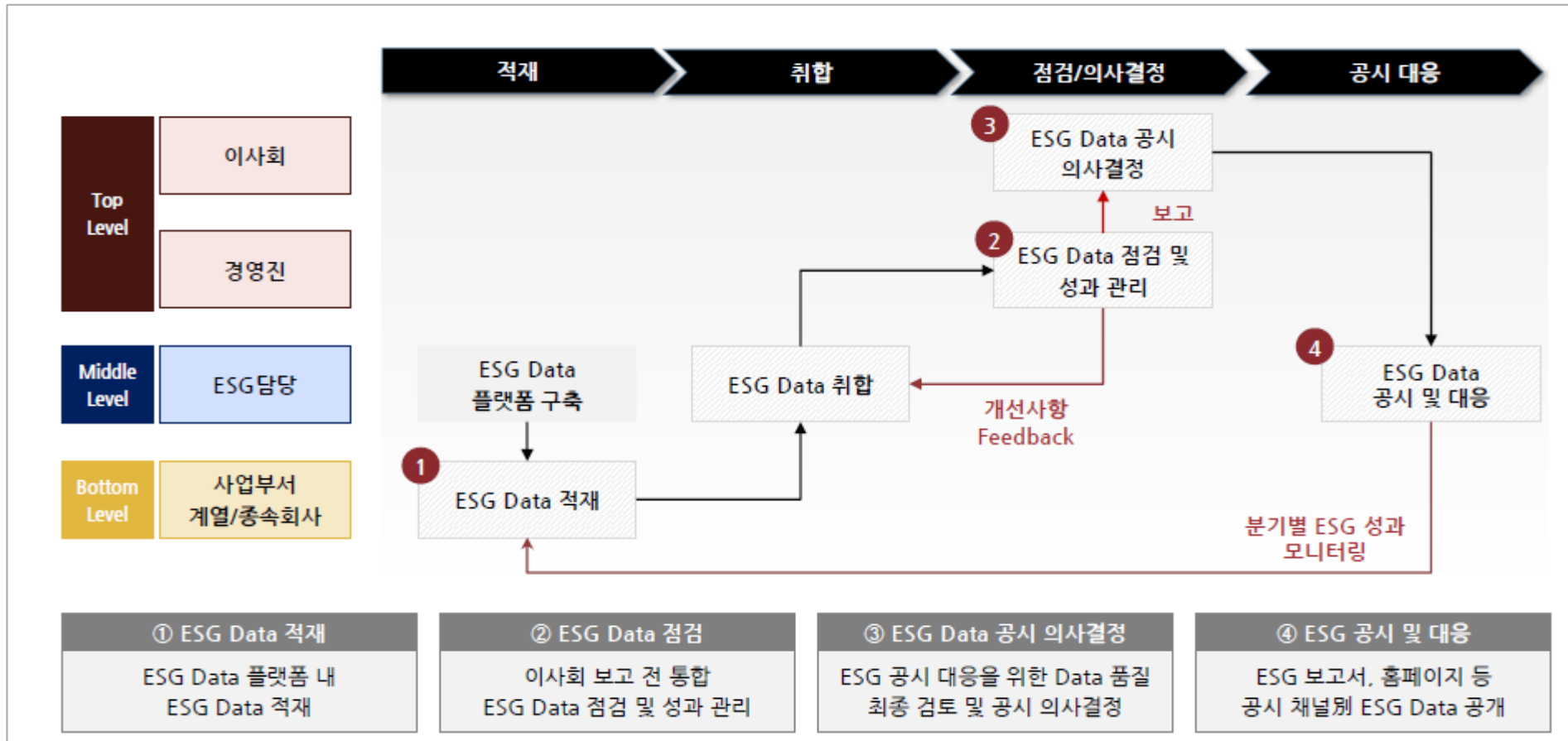
### [ESG 관련 국내 제도 변화]

환경		사회		지배구조	
2011~2015년	2016~202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11~2015년	2016~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인증제품(2011)</li> <li>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제도(2011)</li> <li>화학물질 등록제도 (2013, 20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2018)</li> <li>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2018)</li> <li>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의 개정(2007, 2019)</li> <li>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2019)</li> <li>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2020)</li> <li>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2022.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O22301 비즈니스 연속성경영시스템(2012)</li> <li>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2014, 20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기본법 개정(2017)</li> <li>ISO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2018)</li> <l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18)</li> <li>데이터 3법(2020)</li> <li>중대재해처벌법 (2022..1.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법 종류주식(2011)</li> <li>상법 이사의 책임 (2011)</li> <li>상법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20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직무의 제한 (2016)</li> <li>외부감사법 외부감사의 대상 (2018)</li> <li>자본시장법 여성임원할당 (2020)</li> <li>상법 시행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2020)</li> <li>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차 개정 (2016)</li> <li>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018)</li> <li>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2018)</li> <li>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2016)</li> <li>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2조원 이상 공시 의무화 2019)</li> </ul>

# 기업의 ESG 경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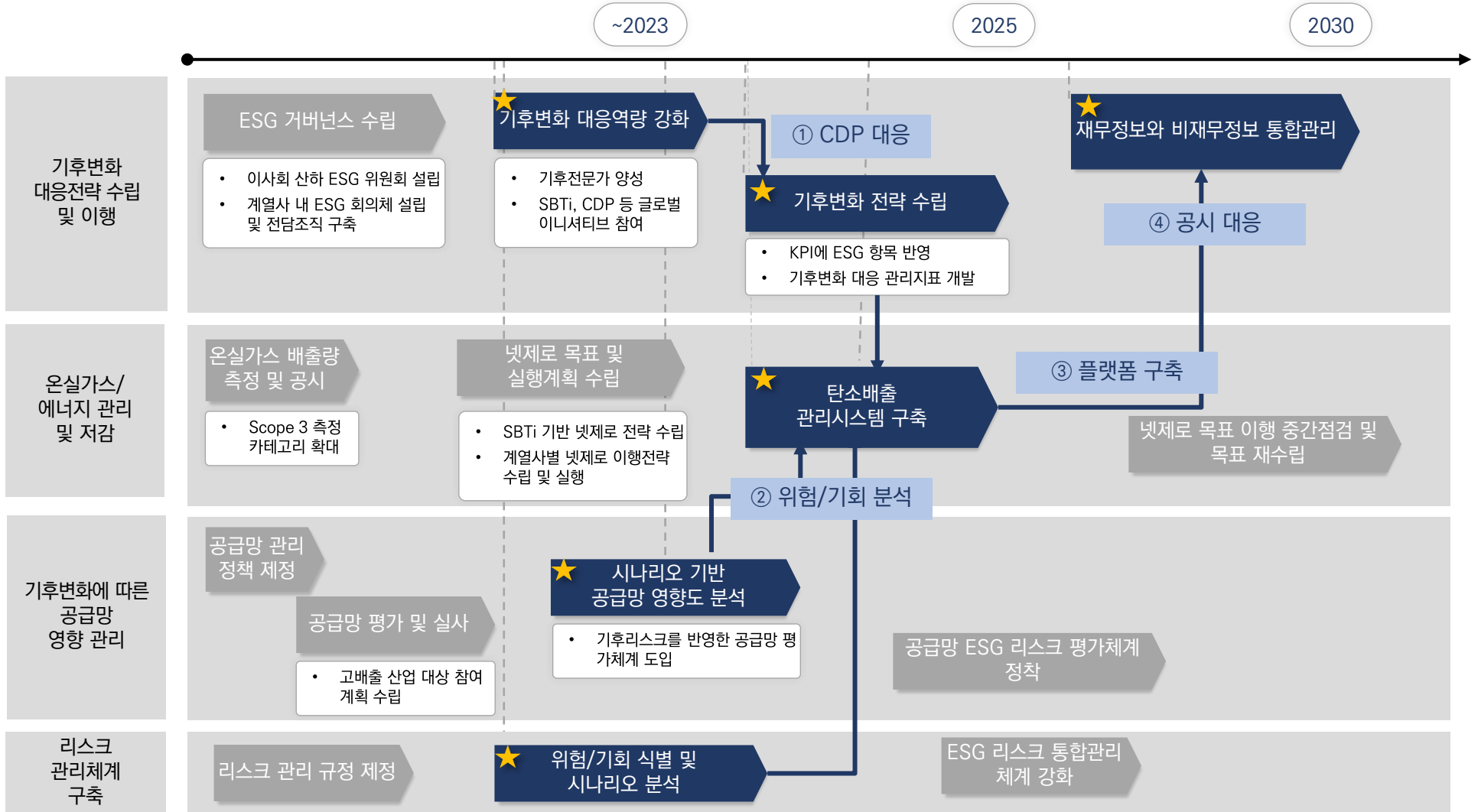
- ESG Data 관리 및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Top Middle Bottom Level 간 명확한 R&R 설정을 기반으로 한 Due Process 구축

[ESG 공시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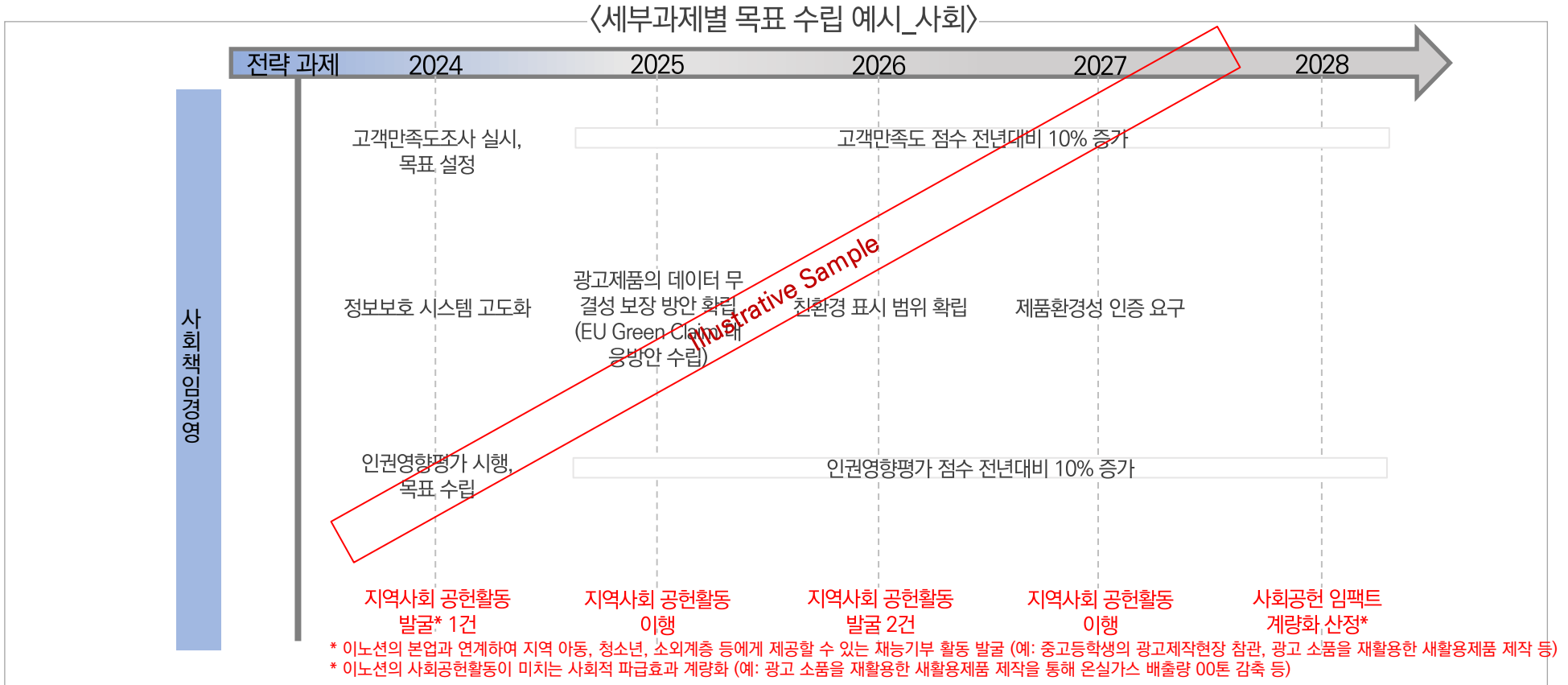
자료: 환경산업기술원 ESG ON 세미나(2024.01.17, 김앤장)

- 기후변화 대응 내재화를 위해서는 ①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 ②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및 저감 ③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 관리 ④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 각 세부 과제에 따른 연도별 KPI와 중장기 목표를 포함한 전체적인 로드맵 수립



# ESG 금융투자 및 평가기관 동향

## ➤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언 내지 ESG 정보공개 실적은 아직 낮은 수준

[국내 금융 관련 15개 공공기관의 ESG 관련 국제협약 등의 가입 또는 지지 선언 현황]

구분	공공기관명	개수
TCFD 지지	사학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10
CDP	공무원연금, 기업은행	2
탈석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업은행('21. 4 예정)	3(4)
NZBA	기업은행	1
UN PRI	국민연금	1
UN EPFI, PRB	기업은행	1
UNGC	신용보증기금	1
EP	산업은행	1
OPSWF	투자공사	1
CIGN	국민연금, 투자공사	1
해당사항 없음	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연론, 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5

[국내 금융 관련 17개 공공기관의 ESG 정보공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탁자책임 및 책임투자 관련 공시
중소기업은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투자공사	지속가능투자보고서 공시 수탁자책임 및 책임투자 공시
자산관리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공시
수출입은행	ESG 경영소개서 발간
신용보증기금	UNGC COP ( ) 연차보고서 공시

자료: 국회 장혜영 의원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의 질의에 대한 주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ESG경영 관련 답변서, 경제개혁연구소, 2021.12.16

- 목표연도와 목표 기준이 서로 상이해 금융기관별 비교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보고서 등에 공시할 때 관련 공시 기준을 맞춰볼 필요가 있음.

[섹터별 개별 ESG 금융 목표 수립 기관]

		금융기관명	목표 연도	목표 금액	목표 기준
공적	연기금	신용보증기금	2023년	2.68	기타
		공무원연금기금	2023년	1.40	잔액기준
		국민연금기금	2023년	-	기타
	공적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30년	206.17	기타
		KDB산업은행	2030년	13.20	투입금액
		중소기업은행	2030년	9.30	투입금액
	기타 공적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	2027년	173.90	투입금액
		우정사업본부	2023년	11.00	잔액기준
		예금보험공사	2023년	1.35	기타
민간	은행	KB국민은행	2023년	28.63	잔액기준
		하나은행	2030년	28.00	투입자금 누적금액
		NH농협은행	2030년	17.68	기타
		우리은행	2023년	9.04	투입자금 누적금액
		신한은행	2023년	1.02	투입자금 누적금액
	보험사 (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2030년	5.5-6.5	기타
		삼성생명보험	2030년	20.00	잔액기준
		미래에셋생명보험	2030년	운용자산의 7%	투입금액
	보험사 (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2030년	15.5	투입자금 누적금액
		KB손해보험	2030년	4.42	잔액기준
		NH농협손해보험	2030년	2.04	기타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2025년	45.00	기타
		KB증권	2023년	1.36	잔액기준
		다올투자증권	2030년	1.10	투입금액
	자산운용사	NH-Amundi자산운용	2023년	0.43	기타
BNK자산운용		2023년	0.27	잔액기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023년	0.13	기타	

자료: 국회의원 이용우(2022 한국ESG 금융백서, KOSIF)

# 1. ESG 금융투자 및 평가기관 동향\_ESG평가기관

환경	글로벌 ESG 평가지표				
	WEP (세계거래소연맹)	MSCI	Sustainalytics	SASB	GRI
1. 온실가스 배출량	○			○	○
2. 에너지 사용량	○			○	○
3.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		○	
4. 폐기물 배출량/재 이용량					○
5. 생물다양성 보호 등		○	○		○
6. 물 사용	○				
7. 공급업체 환경평가					○
8. 탄소배출량		○	○		
9. 대기 질				○	
10. 원재료 <u>소싱</u>	○	○	○		○
11. 환경 법규 위반 사고					○
12. 생물다양성&토지이용		○	○		
13. 기후변화 대응		○			
14. 용수 및 폐수 관리				○	○
15. 환경정책 운영	○				

사회	글로벌 ESG 평가지표				
	WEP (세계거래소연맹)	MSCI	Sustainalytics	SASB	GRI
1. 산업 보건 및 안전	○	○	○	○	○
2. 인권	○		○	○	○
3. 다양성 및 기회균등	○			○	○
4. 개인정보 보호		○	○	○	○
5. 공급망 관리		○	○	○	○
6. 제품/서비스 안전		○		○	○
7. 지역사회		○	○	○	○
8. 노사관계		○		○	○
9. 정보보안		○		○	○
10. 신규고용 및 이직	○				○
11. <u>비차별</u>	○				○
12. 아동 강제 노동	○				○
13. <u>인적자원관리</u>		○	○		
14. 임직원 교육					○
15. 표시 광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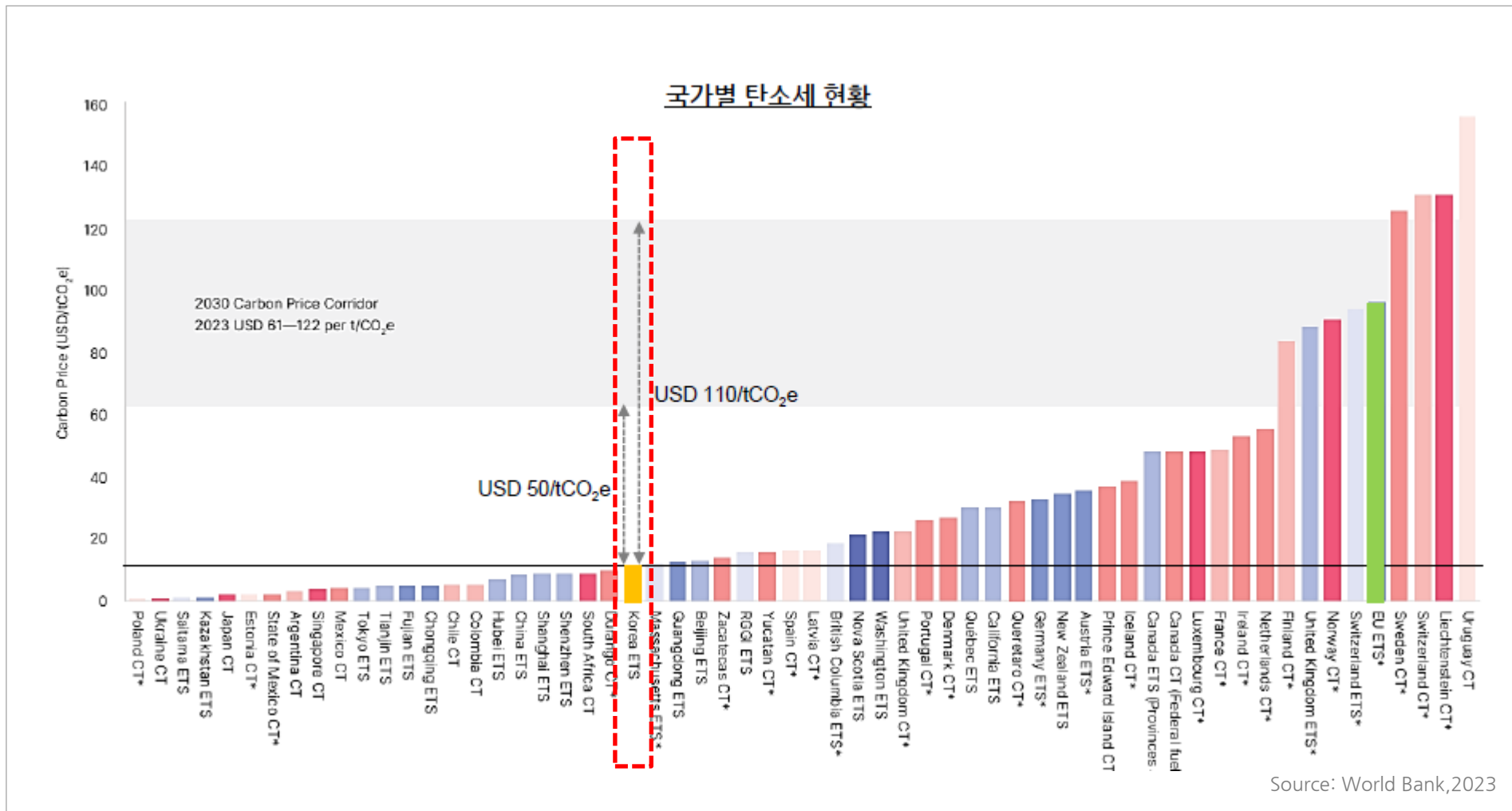
지배구조	글로벌 ESG 평가지표				
	WEP (세계거래소연맹)	MSCI	Sustainalytics	SASB	GRI
1. 윤리경영 및 <u>반부패</u>	○			○	○
2. 이사회 독립성	○				
3. 감사기구					
4. 비즈니스 윤리		○		○	○
5. 외부감사인 독립성	○				
6. 경쟁저해행위				○	○
7. 이사회 다양성	○				
8. 이해관계자 참여					○
9. 간접 경제적 영향					○
10. 경영접근방식 공개					○

- 글로벌 ESG평가사별로 산업별 점수의 가중치는 상이한 관계로, 기업은 해당기업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ESG 5대 평가사 비교]

구분	S&P Global (RobecoSAM)	Sustainalytics	MSCI ESG Research LLC	FTSE Russell	ISS-oekom
평가 항목, 지표, 세부 지표수	37개 항목, 100개 지표, 세부지표(데이터포인트)	20개 항목, 227개 지표	10개 항목, 37개 지표, 230개 세부 지표	14개 항목, 300개 지표, 세부 지표 존재 기업별 평균 125개 지표	6개 항목, 총 45개의 지표, 800개 세부지표 중 산업별로 약 100개의 세부지표를 선정
산업 구분 기준	GICS에서 61개 산업을 별도로 분류	138개 업종으로 자체 분류	GICS의 하위산업분류에 따라 구분	Dow Jones와 FTSE가 만든 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ICB)로 분류. 11개 산업 20개 supersector, 45개 sector, 173개 subsector로 구성	SASB 구성된 산업에 대해서 ISS-Oekom의 산업별 분류 Matrix를 적용하여 총 25가지의 카테고리 분류
산업별 점수 가중치 차이	업종별로 상이한 가중치				
등급 단계	업종별 상대평가 상위기업을 3단계와 상승폭이 큰 기업을 Industry Mover로 선정해 공개	Negligible ~ Severe 5개 등급	7단계(AAA(Best), AA, A, BBB, BB, B, CCC(Worst))	0~5점의 점수 부여	D-에서 A+까지 총 12개 등급 분류 체계

- 현재의 탄소 가격이 유지될 경우 국내 CBAM 대상 기업의 CBAM 비용은 탄소 1 톤당 50~110 달러 수준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 있음. 따라서 생산 공정 효율 향상 필요



### ➤ 온실가스 관련 사회적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탄소가격 환산)

- 국내 주요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필요한 사회적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이 재무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사회적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통상 각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대응

#### [글로벌 탄소가격의 지역별 적정가격 시나리오]

구분	선진국 (Advanced countries) (미국, EU, 중국 등)	고소득_신흥국가 (Higher-income emerging economies)	저소득_신흥시장 (Lower-income emerging countries)
탄소 최소가격 제안	\$75	\$50	\$25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한국거래소, KAU21기준)		-	\$17

\*출처: IMF(The critical role for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s, 2021.6.18), KRX KAU21 가격은 2021/07/07 기준

####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톤 CO2eq)

구분	확정				잠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배출량	692.5	693.5	709.7	727.6	699.5	648.6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6.7 기준)



### ➤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보다 중견기업 중심으로 온실가스 관련 재무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커

- 탄소감축에 따른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등 향후 중견기업의 탄소감축에 필요한 정부지원 및 정책이 필요
  - 탄소감축에 따른 탄소보상배율(영업이익/사회적비용)이 중견기업이 대기업 상장기업에 그 배율이 낮음

####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92개社)의 탄소보상배율]

(단위: 억원, 톤CO2eq,%)

구분	영업이익 (a)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권 시세	사회적비용 (b)	탄소보상배율 (a/b)
탄소배출권 가격					
- 17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19,450원	18,291억원	46.5
- 25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22,760원	21,403억원	39.8
- 40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34,140원	32,105억원	26.5

#### [非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06개社)의 탄소보상배율]

(단위: 억원, 톤CO2eq,%)

구분	영업이익 (a)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권 시세	사회적비용 (b)	탄소보상배율 (a/b)
탄소배출권 가격					
- 17달러 기준	168,758억원	15,180만톤	19,450원	29,526억원	5.7
- 25달러 기준	168,758억원	15,180만톤	22,760원	34,551억원	4.9
- 40달러 기준	168,758억원	15,180만톤	34,140원	51,827억원	3.3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영업이익은 3년 평균, 탄소배출권 시세는 2021.7.7, 탄소배출량 상위 106개사 기준

감사합니다